

美術作品을 통하여 본 齒科医学

作者 Gany 1672年度(?)

보통 이런류의 그림은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치과를 소재로 많이 삼고 있으며, 색의 콘트라스트가 명쾌하나 어디인가 우울한 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오른편 멀리 대합실인듯한 거실에 몇개인가 의자가 놓여 있고 창문을 통해 화사한 태양빛이 시간을 알려주며 엄숙한 그림속에서도 한가로움을 나타내주고 있다.

빛을 즐겨히 사용한 구도는 종종 중후한 면과 가냘픈 희망의 표현으로 즐겨히 사용되고 있다.

환자의 입속에서 방금 어떻게 빼낸 치아를 오

른손으로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의사의 모습이 다정스럽게 보이며 왼손으로 환자의 머리를 누르면서 무엇인가 약으로 입을 씻어 내게하는 인자한 두손이 특히나 돋보인다.

아픔의 공포속에서 갓 해방된 공포에 찬 환자의 눈망울은 그리 쉽사리 잊어지지 않은 장면으로 의사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옆벽의 선반에 있는 약 조제기구와 전면 창가에 있는 약병, 기구상자, 큰대야, 타월은 단순한 발치 시술뿐만 아니라 아픔을 제거하는 약을 투약했던 것 같다. 전면 방포에 Gany, 1672년이라는 서명을 볼 수 있다.



研究와 精進을 指向하는

寶 城 合 金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65

代表 朴 允 三

☎ (253) 3411 · (255) 3024